과외 및 수업을 하며 학생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국어다”
비문학을 읽을 때처럼 비교,대조도 하고 지시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알아야하며 지문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어는 국어와 다르지 않으며, 국어책을 읽듯이 차근차근 읽고 논리적이고 어긋남 없이 지문을 읽게 하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본인의 사고과정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밑에 해석을 달아두었으니 맨 처음 푸시고 고민하다가 해석이 안되는 부분을 보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엔 문제 해설을 적어놓았으니 해설과 같은 논리를 거쳐 사고하셨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 홍영어 수업자료

1.주제 (22~24)

영어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어려운 유형도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하고, 어려운 22~24번 유형을 익혀가며 빈칸과 순서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 **큰 흐름을 잡자**. 대한민국의 부산을 얘기하더라도 그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정보에 매몰되기 전 무엇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해야 나중에 까다로운 주제문을 만났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 must, should 등 해야만 하는 애들은 꼭 해야하는 만큼 중요하겠죠?

- However, but 등의 역접과 For example 등 예시 앞 문장입니다.
문장의 흐름이 바뀌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니 더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홍영어 수업자료

<23-09-22>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Historically, drafters of tax legislation are attentive to questions of economics and history, and less attentive to moral questions. Questions of morality are often pushed to the side in legislative debate, labeled too controversial, too difficult to answer, or, worst of all, irrelevant to the project. But, in fact, the moral questions of taxation are at the very heart of the creation of tax laws. Rather than irrelevant, moral questions are fundamental to the imposition of tax. Tax is the application of a society's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Economics can go a long way towards helping a legislature determine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ax law will help achieve a particular goal, but economics cannot, in a vacuum, identify the goal. Creating tax policy requires identifying a moral goal, which is a task that must involve ethics and moral analysis.

* legislation: 입법 ** imposition: 부과

①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시민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②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인 정책 수립의 선행 조건이다.
③ 성실한 납세는 안정적인 정부 예산 확보의 기반이 된다.
④ 경제학은 세법을 개정할 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⑤ 세법을 만들 때 도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영어수업자료

역사적으로, 조세 입법 입안자들은 경제학과 역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덕적 질문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도덕성에 관한 질문은 종종 입법 토론에서 옆으로 밀려나면서, 너무 논란이 많거나, 답변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실, 조세의 도덕적 문제는 세법을 만드는 핵심에 있다.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은 세금 부과에 근본적이다. 세금은 사회의 분배 정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경제학은 입법부가 특정 세법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학만으로는 목표를 규명할 수 없다. 조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윤리학과 도덕적 분석을 수반해야 하는 과업이다.

정답:5번

Historically, drafters of tax legislation are attentive to questions of economics and history, and less attentive to moral questions. Questions of morality are often pushed to the side in legislative debate, labeled too controversial, too difficult to answer, or, worst of all, irrelevant to the project. But, in fact, the moral questions of taxation are at the very heart of the creation of tax laws. Rather than irrelevant, moral questions are fundamental to the imposition of tax. Tax is the application of a society's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Economics can go a long way towards helping a legislature determine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ax law will help achieve a particular goal, but economics cannot, in a vacuum, identify the goal. Creating tax policy requires identifying a moral goal, which is a task that must involve ethics and moral analysis.

* legislation: 입법 ** imposition: 부과

도덕적 질문은 세금 부과에 근본적이라는 명시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조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나와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홍영어 수업자료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①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시민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분배 정의의 실현이 주된 목표도 아니고 시민 단체의 역할이 글의 주된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②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인 정책 수립의 선행 조건이다.
사회적 합의에 관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③ 성실한 납세는 안정적인 정부 예산 확보의 기반이 된다.
성실한 납세..아닙니다. 안정적 정부 예산 확보도 아닙니다. 탈락이죠.

④ 경제학은 세법을 개정할 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경제학에 관한 글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고 다른 선지도 막 어렵지 않은 수준이니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아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3-09-23>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nvironmental learning occurs when farmers base decisions on observations of "payoff" information. They may observe their own or neighbors' farms, but it is the empirical results they are using as a guide, not the neighbors themselves. They are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as experiments and assessing such factors as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s, difficulty of use, and "trialability" — how well can it be experimented with. But that criterion of "trialability"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 it's true that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but working farms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Farmers cannot set up the controlled conditions of professional test plots in research facilities. Farmers also often confront complex and difficult-to-observe phenomena that would be hard to manage even if they could run controlled experiments. Moreover farmers can rarely acquire payoff information on more than a few of the production methods they might use, which makes the criterion of "relative advantage" hard to measure.

홍영어 수업자료

* empirical: 경험적인 ** compatibility: 양립성*** criterion: 기준

① limitations of using empirical observations in farming
② challenges in modernizing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③ necessity of prioritizing trialability in agricultural innovation
④ importance of making instinctive decisions in agriculture
⑤ ways to control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

환경적 학습은 농부들이 '이익' 정보에 관한 관찰에 근거하여 결정할 때 발생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농장을 관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웃 자체가 아니라 경험적 결과이다. 그들은 농업 활동을 실험으로 보고 상대적 이점, 기존 자원과의 양립성,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시험 가능성', 즉 그것이 얼마나 잘 실험될 수 있는가와 같은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험 가능성'의 기준은 진짜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는데, 농부들이 항상 실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하는 농장은 매우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다. 농부는 연구 시설에서 전문적인 시험구성의 통제된 조건을 마련할 수 없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농부는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워 관리하기 힘들 현상에 자주 직면하기도 한다. 게다가 농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생산 방법을 넘어서는 것에 관한 이익 정보를 거의얻을 수 없고, 이는 '상대적 이점'의 기준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답:1번

Environmental learning occurs when farmers base decisions on observations of "payoff" information. They may observe their own or neighbors' farms, but it is the empirical results they are using as a guide, not the neighbors themselves. They are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as experiments and assessing such factors as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s, difficulty of use, and "trialability" — how well can it be experimented with. But that criterion of "trialability"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 it's true that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but working farms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Farmers cannot set up the controlled conditions of professional test plots in research facilities. Farmers also often confront complex and difficult-to-observe phenomena that would be hard to manage even if they could run controlled experiments. Moreover farmers can rarely acquire payoff information on more than a few of the production methods they might use, which makes the criterion of "relative advantage" hard to measure.

홍영어 수업자료

* empirical: 경험적인 ** compatibility: 양립성*** criterion: 기준

지문의 초반 부분에 농부들이 경험적 결과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나와있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But 뒷 부분부터는 이러한 방식(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② challenges in modernizing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농업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었죠. 탈락입니다.

③ necessity of prioritizing trialability in agricultural innovation

우선 순위>> 순서를 정하는 부분은 없었죠. 무엇인가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게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농업 혁신에서의 필요성도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④ importance of making instinctive decisions in agriculture

농업에서 본능적 결정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니었습니다. 탈락이죠.

⑤ ways to control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

예측 불가능한 농업 상황이 있다고는 나와 있으나 이것을 통제하는 방식에 관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지문을 대충 읽으면 이런 선지가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차근차근 읽어줍시다.

<23-09-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t only musicians and psychologists, but also committed music enthusiasts and experts often voice the opinion that the beauty of music lies in an expressive deviation from the exactly defined score. Concert performances become interesting and gain in attraction from the fact that they go far beyond the information printed in the score. In his early studies on musical performance, Carl Seashore discovered that musicians only rarely play two equal notes in exactly the same way. Within the same metric structure, there is a wide potential of variations in tempo, volume, tonal quality and intonation. Such variation is based on the composition but diverges from it individually. We generally call this 'expressivity'. This explains why we do not lose interest when we hear different artists perform the same piece of music. It also explains why it is worthwhile for following generations to repeat the same repertoire. New, inspiring interpretations help u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which serves to enrich and animate the music scene.

* deviation: 벗어남

홍영어 수업자료

① How to Build a Successful Career in Music Criticism
② Never the Same: The Value of Variation in Music Performance
③ The Importance of Personal Expression in Music Therapy
④ Keep Your Cool: Overcoming Stage Fright When Playing Music
⑤ What's New in the Classical Music Industry?

음악가와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음악 애호가와 전문가도 음악의 아름다움은 정확히 정해진 악보로부터 표현상 벗어나는 데 있다고 흔히 목소리를 높인다. 콘서트 공연은 악보에 인쇄된 정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에서 흥미롭고 매력을 얻는다. 음악 연주에 관한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Carl Seashore는 음악가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동등한 음을 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미터구조 내에서, 박자, 음량, 음질 및 인토네이션에 있어 광범위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에 기초하지만, 개별적으로 그것으로부터 갈라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표현성'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서로 다른 예술가가 같은 음악을 연주할 때 우리가 흥미를 잃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것은 또한 다음 세대가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롭고 영감을 주는 해석은 우리가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이해는 음악계를 풍부하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정답:2번

Not only musicians and psychologists, but also committed music enthusiasts and experts often voice the opinion that the beauty of music lies in an expressive deviation from the exactly defined score. Concert performances become interesting and gain in attraction from the fact that they go far beyond the information printed in the score. In his early studies on musical performance, Carl Seashore discovered that musicians only rarely play two equal notes in exactly the same way. Within the same metric structure, there is a wide potential of variations in tempo, volume, tonal quality and intonation. Such variation is based on the composition but diverges from it individually. We generally call this 'expressivity'. This explains why we do not lose interest when we hear different artists perform the same piece of music. It also explains why it is worthwhile for following generations to repeat the same repertoire. New, inspiring interpretations help u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which serves to enrich and animate the music scene.

* deviation: 벗어남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답의 근거가 명확함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읽을 때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인지 스스로 체크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접도 없고 지문에서 계속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① How to Build a Successful Career in Music Criticism
음악 비평도 아니고 성공적인 커리어?는 절대 아니죠. 탈락입니다.

③ The Importance of Personal Expression in Music Therapy
표현성이라는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개인적 표현또한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heraphy라는 단어를 보고 바로 아니란 것을 체크했어야 하죠. 현장에서 이런 것을 보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내가 현장에서 급하게 이런걸 봤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행동강령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④ Keep Your Cool: Overcoming Stage Fright When Playing Music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건... 아니죠?

⑤ What's New in the Classical Music Industry?
클래식 음악산업 관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탈락.

<23-06-22>
다음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ften overlooked, but just as important a stakeholder, is the consumer 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 Consumer engagement levels in all manner of digital experiences and communities have simply exploded — and they show little or no signs of slowing. There is an awareness among consumers, not only that their personal data helps to drive the rich experiences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but also that sharing this data is the price you pay for these experie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when, and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 the consumer is often left feeling vulnerable and conflicted. "I love this restaurant-finder app on my phone, but what happens to my data if I press 'ok' when asked if that app can use my current location?" Armed with tools that can provide them options, the consumer moves from passive bystander to active participant.

홍영어 수업자료

* stakeholder: 이해관계자 ** vulnerable: 상처를 입기 쉬운

①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②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에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③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④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
⑤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흔히 간과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개인정보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비자이다. 모든 방식의 디지털 경험과 공동체에서 소비자의 참여 수준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둔화될 기미가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추진하는 데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이러한 경험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있다.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내용과 시기, 이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흔히 취약하고 갈등을 겪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내 전화기에 있는 이 식당 검색 앱이 마음에드는데, 그 앱이 내 현재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ok'를 누르면 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무장한 소비자는 수동적 방관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이동한다.

정답:1번

Often overlooked, but just as important a stakeholder, is the consumer 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 Consumer engagement levels in all manner of digital experiences and communities have simply exploded — and they show little or no signs of slowing. There is an awareness among consumers, not only that their personal data helps to drive the rich experiences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but also that sharing this data is the price you pay for these experie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when, and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 the consumer is often left feeling vulnerable and conflicted. "I love this restaurant-finder app on my phone, but what happens to my data if I press 'ok' when asked if that app can use my current location?" Armed with tools that can provide them options, the consumer moves from passive bystander to active participant.

홍영어 수업자료

* stakeholder: 이해관계자 ** vulnerable: 상처를 입기 쉬운

글의 초반 부분은 privacy를 활용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구나 >> 그런데 더 나은 이해가 '없다면' 소비자는 취약한 상태가 되는구나. >> 무장한 소비자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닌 활동적인 참여자가 되네? 그러면 빨간 줄 쳐진 Armed with tools 한 상태는 better understanding한 것과 같은 말이구나.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②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에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자는게 글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탈락.
③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게 글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④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분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지문에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글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주제문의 제목은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4번 선지는 전체를 아우르진 못하죠? 지문 내용은 대가가 따를 수 있으니 이해도를 더 높여서 활동적인 참여자가 되자! 가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옳기는 하나 한부분만 적은 선지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선지가 윗글을 다 포괄하는가? 이 생각을 꼭 해줍시다.
⑤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타인과의 정보 공유가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애초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가를 다루는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23-06-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s shown that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in the words and concepts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for describing emotions, as well a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that draw 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However, those data do not actually show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emotions, if we think of emotions as central, neurally implemented states. As for, say, color vision, they just say that,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varies according to culture and that we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the social context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emotions. However, the emotional states themselves ar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s. In a sense, we can think of a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but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 are plastic and can be modified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홍영어 수업자료

* anthropologist: 인류학자 ** stimuli: 자극

*** cognitive: 인지적인

① essential links between emotions and behaviors
② culturally constructed representation of emotions
③ falsely described emotions through global languages
④ universally defined emotions across academic disciplines
⑤ wider influence of cognition on learning cultural contexts

문화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주목할 만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끌어내는 사회적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휘와 개념에 정말로 크고, 때로는 놀랄만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 만약 우리가 감정을 중추 신경의, 즉 신경계에서 실행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색 식별에 대해 데이터들은 단지, 체내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고, 범주화하며 명명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사회적 상황을 특정 문화에서 배운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하지만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문화 전반에 걸쳐 지극히 불변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화에 의해 형성되어 두뇌에서실행되는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모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감정상태와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 상태 간의 연관성은 매우 바뀌기 쉬워,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정답:2번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s shown that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in the words and concepts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for describing emotions, as well a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that draw 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However, those data do not actually show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emotions, if we think of emotions as central, neurally implemented states. As for, say, color vision, they just say that,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varies according to culture and that we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the social context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emotions. However, the emotional states themselves ar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s. In a sense, we can think of a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but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 are plastic and can be modified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홍영어 수업자료

* anthropologist: 인류학자 ** stimuli: 자극

*** cognitive: 인지적인

감정상태 그 자체는 불변하나 감정 상태와 다른 인지 상태 간의 연결성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정답은 2번.
지문을 대충 읽으면 감정은 불변한다며? 그런데 감정이 변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사고가 혼란스러워지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물론 마지막 문장에서 연결성은 변한다는 명시적 단서를 확인해주었다면 정답을 고르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정도 되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나갈 수 있다면 어려운 빈칸도 충분히 헤쳐나갈 사고력이 충분한 것이고, 만약 두루뭉술하게 읽어서 선지판단이 어려웠다면 스스로가 너무 빨리 읽거나 대충 읽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봅시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essential links between emotions and behaviors
감정과 '행동'간의 근본적 연관성에 관한 글이 아니었죠.
③ falsely described emotions through global languages
세계 공용어를 통해 묘사되어진 감정도 아니고 잘못 묘사되어진 감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④ universally defined emotions across academic disciplines
학문 분야도 아니고 이곳에서 보편적으로 정의된 감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⑤ wider influence of cognition on learning cultural contexts
문화적 상황을 학습..아닙니다. 탈락.

<23-06-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pproach, joint cognitive systems, treats a robot as part of a human-machine team where the intelligence is synergistic, aris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each agent. The team consists of at least one robot and one human and is often called a mixed team because it is a mixture of human and robot agents. Self-driving cars, where a person turns on and off the driving, is an example of a joint cognitive system. Entertainment robots are examples of mixed teams as are robots for telecommuting. The design process concentrates on how the agents will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each other to accomplish the team goals. Rather than treating robots as peer agents with their own completely independent agenda, joint cognitive systems approaches treat robots as helpers such as service animals or sheep dogs. In joint cognitive system design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along with human-robot interaction principles to create robots that can be intelligent enough to be good team members.

홍영어 수업자료

① Better Together: Human and Machine Collaboration
② Can Robots Join Forces to Outperform Human Teams?
③ Loss of Humanity in the Human and Machine Conflict
④ Power Off: When and How to Say No to Robot Partners
⑤ Shifting from Service Animals to Robot Assistants of Humans

'결합 인지 시스템' 접근법은 로봇을 지력이 서로 도움을 주고, 각 행위자의 기여로 생겨나는 인간-기계 팀의 일부로 다룬다. 그 팀은 적어도 로봇 하나와 인간 한 명으로 구성되고 그 팀이 인간 행위자와 로봇 행위자가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흔히 '혼합 16팀'이라고 불린다. 사람이 주행(엔진)을 켜고 끄는 자율주행차는 결합 인지 시스템의 한 예이다. 오락용 로봇은 재택근무를 위한 로봇처럼 혼합팀의 예다. 설계 과정은 그 행위자들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지에 집중한다. 결합 인지 시스템 접근법은 로봇을 그들 자체의 완전히 독립된 과제를 가진 동료행위자로 다루기보다는 로봇을 도우미 동물이나 양몰이 개처럼 도움을 주는 존재로 다룬다. 결합 인지 시스템 설계에서, 훌륭한 팀 구성원이 될 만큼 똑똑해질 수 있는로봇을 만들기 위해 인공 지능이 인간-로봇 상호작용 원리와 함께 사용된다.

정답:1번

The approach, joint cognitive systems, treats a robot as part of a human-machine team where the intelligence is synergistic, aris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each agent. The team consists of at least one robot and one human and is often called a mixed team because it is a mixture of human and robot agents. Self-driving cars, where a person turns on and off the driving, is an example of a joint cognitive system. Entertainment robots are examples of mixed teams as are robots for telecommuting. The design process concentrates on how the agents will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each other to accomplish the team goals. Rather than treating robots as peer agents with their own completely independent agenda, joint cognitive systems approaches treat robots as helpers such as service animals or sheep dogs. In joint cognitive system design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along with human-robot interaction principles to create robots that can be intelligent enough to be good team members.

홍영어 수업자료

하이퍼 모빌리티 너무 좋아. >> 그러나!!!!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② Accessibility: A Guide to a Web of Urban Areas

접근성!!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나 장소에 관한 접근이 불편해졌다는 말은 괜찮겠죠. 도시 지역망 가이드라는 말은 글의 주제로 적절치 않습니다.

③ A Long and Winding Road to Economic Success

경제적 성공에서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Inevitable Regional Conflicts from Hyper-mobility

하이퍼 모빌리티로부터 파생된 지역갈등.....아니죠?

⑤ Infrastructure: An Essential Element of Hyper-mobility

산업기반시설이 하이퍼 모빌리티의 필수적인 요소인지에 관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탈락.

<22-11-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nvironmental hazards include biological, physical, and chemical ones, along with the human behaviors that promote or allow exposure.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 are difficult to avoid (the breathing of polluted air, the drinking of chemically contaminated public drinking water, noise in open public spaces); in these circumstances, exposure is largely involuntary.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may require societal action, such as public awareness and public health measures. In many countries, the fact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 is felt to be more morally egregious than tho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 Having no choice but to drink water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or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restaurants, outrages people more than the personal choice of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obacco. These factors are important when one considers how change (risk reduction) happens.

홍영어 수업자료

* contaminate: 오염시키다 ** egregious: 매우 나쁜

①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
④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⑤ 대기오염 문제는 인접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환경 위험 요인에는 생물학저그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인과 함께 노출을 조장하거나 허용하는 인간의 행동이 포함된다. (오염된 공기의 호흡, 화학적으로 오염된 공공 식수의 음용,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처럼) 일부 환경 오염 물질은 피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출은 대개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인의 감소 또는 제거에는 대중의 인식 및 공중 보건 조치와 같은 사회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일부 환경적 위험 요인이 개인 수준에서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매우 나쁜 것으로 느껴진다. 어쩔 수 없이 매우 높은 수준의 비로소 오염된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는 것이나, 식당에서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개인이 담배를 피울지 말지에 대해 개인적인 선택보다 더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변화(위험 감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 중요하다.

정답:1번

Environmental hazards include biological, physical, and chemical ones, along with the human behaviors that promote or allow exposure.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 are difficult to avoid (the breathing of polluted air, the drinking of chemically contaminated public drinking water, noise in open public spaces); in these circumstances, exposure is largely involuntary.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may require societal action, such as public awareness and public health measures. In many countries, the fact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 is felt to be more morally egregious than tho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 Having no choice but to drink water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or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restaurants, outrages people more than the personal choice of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obacco. These factors are important when one considers how change (risk reduction) happens.

홍영어 수업자료

* contaminate: 오염시키다 ** egregious: 매우 나쁜

환경오염에 관한 것(물질 등)은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구나. 개인의 수준에서는 피하기가 어렵다고 확신을 주니 정답은 1번.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 또한 아니었습니다.
③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
건강을 해치는 환경오염에 대해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탈락.
④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사후 대응인지 예방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 더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⑤ 대기오염 문제는 인접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대기오염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앞의 지문에서도 다루었듯이 제목은 지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가 주된 내용 전개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탈락.

<22-11-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cientists use paradigms rather than believing them. The use of a paradigm in research typically addresses related problems by employing shared concepts, symbolic expressions,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s,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 Scientists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others would accept.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 thus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in scientists' beliefs about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Indeed, one role of a paradigm is to enable scientists to work successfully without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or what they believe about it. Thomas Kuhn noted that scientists "can agree in their identification of a paradigm without agreeing on, or even attempting to produce,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 Lack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or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 will not prevent a paradigm from guiding research."

홍영어 수업자료

① difficulty in drawing novel theories from existing paradigms
② significant influence of personal beliefs in scientific fields
③ key factors that promote the rise of innovative paradigms
④ roles of a paradigm in grouping like-minded researchers
⑤ functional aspects of a paradigm in scientific research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한다'.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공유된 개념, 상징적 표현, 실험 및 수학적 도구와 절차.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이론적 진술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방식으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된 실행의 요소들은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그들의 믿음에서 그 어떤 비슷한 통일성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은 과학자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그것에 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 없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Thomas Kuhn이 언급하기를,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나 '이론적 설명'에 동의하거나, 심지어 그런 것을 만들어 내려고 지도조차 하지 않고도, 그것(패러다임)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일치를 보일 수 있다. 표준적인 해석이나 규칙으로 축약되어 합의된 것이 없다 해도 패러다임이 연구를 안내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정답:5번

Scientists use paradigms rather than believing them. The use of a paradigm in research typically addresses related problems by employing shared concepts, symbolic expressions,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s,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 Scientists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others would accept.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 thus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in scientists' beliefs about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Indeed, one role of a paradigm is to enable scientists to work successfully without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or what they believe about it. Thomas Kuhn noted that scientists "can agree in their identification of a paradigm without agreeing on, or even attempting to produce,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 Lack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or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 will not prevent a paradigm from guiding research."

홍영어 수업자료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것은 계속 말하고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역접도 없고 선지도 어렵지 않아 정답을 체크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① difficulty in drawing novel theories from existing paradigms
기존에 존재하는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여기서 헷갈렸다면 선지에 허용 가능성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봅시다.

② significant influence of personal beliefs in scientific fields
개인적 믿음의 중요성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③ key factors that promote the rise of innovative paradigms
패러다임을 혁신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분야에서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글이었죠.

④ roles of a paradigm in grouping like-minded researchers
생각이 비슷한 연구원들.....아니죠? 탈락입니다.

<22-11-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u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when broken,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홍영어 수업자료

①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 The Art of Repair
② A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
③ How to Be a Creative Repairperson: Tips and Ideas
④ A Process of Repair: Create, Modify, Transform!
⑤ Can Industrialization Mend Our Broken Past?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에는 흔히 최초 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주문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고, 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것, 즉 사용자에게 맞게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고객들은 뭔가 잘못되면 물건을 다시 가져다주곤 했고, 따라서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었다. 산업화와 결국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한된 지식을 지닌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에 대한 더 큰 이해, 즉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계속 요구되었다. 1896년의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의 설명에 따르면, "제조 업자들은 모두 기계나 방대한 분업으로 일하고, 말하자면 수작업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수리는 손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계로 손목시계나 총의 모든 세부적인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고장 났을 때 기계는 그것을 고칠 수 없으며, 시계나 권총은 말할 것도 없다!"

정답:1번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u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when broken,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홍영어 수업자료

물건을 고치는데 많은 창의력이 요구되는구나. but 뒷 문장을 통해 물건을 고치는데 필요한 창의력은 설계와 재료, 제작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읽고 1번 선지의 the art of repair을 보고 정답에 대한 어느정도의 확신을 가진 후, 나머지 선지를 쳐내면 시험장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blacksmith가 대장장이인 것을 알았다면 1번 선지를 보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② A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
수리 기술이 발전한 역사에 관해 다루는 것은 아니죠. 탈락입니다.
③ How to Be a Creative Repairperson: Tips and Ideas
창의적 수리공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창의적 수리공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 뿐이지 되는 방법이 아니죠. 탈락입니다.
④ A Process of Repair: Create, Modify, Transform!
수리의 과정에 대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⑤ Can Industrialization Mend Our Broken Past?
산업화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한다...이런 글이 아니었죠? 탈락입니다.